

학교폭력 예방은 인간관계 회복부터

전일광장

이기연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연구원·교육학박사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연일 화제다. 작년에 공개되었던 '파트 1'에선 주인공이 당했던 학교폭력의 잔인함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얼마전 공개된 '파트 2'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복수를 하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통쾌함과 권선징악의 결말이 많은 이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파트 2가 공개되는 날 몰아 보기를 하였다.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주인공이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장면이었다. 부모에게도 이용당하고 학교폭력을 당한 학교에서도 외면당했던 주인공이 자퇴하고 입사한 공장에서 만난 동생, 아르바이트를 하던 목욕탕에서 만난 아주머니, 조력자인 이모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준 형사, 그리고 복수를 위해 망나니 역할을 자처하며 사랑을 나눠준 의사 등을 떠올리며 "옆에 있었던 좋은 어른들 덕분에 더 망가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대사였다.

이 드라마에 많은 이들이 열광을 한 것은 현실에서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고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다뤘기 때문일 것이다. 공교롭게 경찰 고위직에 도전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법(法)'을 교묘히 이용해 명문

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된 국민적 공분도 '더 글로리'의 결말에 환호하게 했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가 그러하듯 힘을 가진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사실의 공론화를 어렵게 한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한다.

더욱 큰 문제는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로 여기고 못 본 척 하는 것이다. 여기엔 학교 내 교우관계 친밀도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광주교육종합실태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100점 환산 점수 기준 2018년 79.5점, 2020년 78.0점, 2022년 77.2점으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반면 '친구들과 잘 어울려지낸다'는 응답은 2018년 74.5점, 2020년 80.8점, 2022년 82.4점으로 높아졌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긴밀한 관계의 친구는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친구 사이지만 너무 가깝거나 사생활을 공유하는 정도까지의 친밀함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요즘 학생들의 개인주의와 목적지향적인 관계 형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교우관계는 학교나 직장에서 누군가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다양한 폭력에 힘들어하더라도 '저 정도는 심각한 것이 아니니 괜찮겠지', '내가 당한 것이 아니니 개입하지 말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관여하겠지'라는 책임 전가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쉽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 교수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40년에 걸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열악한 가정 환경과 사회경제적 조

건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삶에 관한 연구로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카우아이 섬은 하와이 군도에 속해있지만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은 오지이다. 섬 주민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 비행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에미 워너는 그중 '고위험군'에 속한 201명을 추려내어 성장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회 부적응자의 비율은 65%였고, 가정 환경,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인 상황, 교우관계 등 모든 것이 열악했던 아이들 중 35% 정도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은 '인간관계'라는 결과였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자신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의 유무가 카우아이 섬 출신 아이의 성장 모습을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한 35%는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던 반면, 자신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65%는 일탈과 비행을 일삼는 사람으로 키워졌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 가족, 친구 등과의 관계맺음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딜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관계, 이를 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감해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인간관계의 회복이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친구,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는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社說

전두환 손자 광주행 진실규명 탄력붙기를

전씨 직계가족 첫 사과 '의미'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씨 손자 우원(27)씨가 광주를 찾아 광주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전 씨는 지난 30일 오전 광주에 도착해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5·18민주화운동)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씨는 이어 "이렇게 늦게 오게돼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온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전 씨는 앞서 SNS에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며 "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폭로에 나섰다 주장, 관심을 끌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가

족들의 주장도 있지만 그의 증언은 의미가 있다. 직계가족으로서 조부인 전두환씨를 5월 학살자로 지목한데다 처음으로 사죄한 사례여서다. 전두환씨는 1997년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광주 사태와 무관하다"고 줄곧 부인하다 2021년 사망했다. 우원씨의 광주행보에 대해 5월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 단체는 전씨를 도와 31일부터 5·18 유족 면담과 5·18민주묘지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전씨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40여년전 전두환씨가 광주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증언 등을 통해 5월 진실 규명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 전씨의 광주행이 5·18 당시 신군부 지도부, 즉 광주시민 학살 책임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이들의 진실 고백과 사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5·18 일부 단체(부상자회·공모자회)와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간 화해를 놓고 지역에서 일어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특전사 동지회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5·18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에 탄력이 붙기를 바란다.

폐업 선언한 소아과 의사, 정부 책임 없나

5년간 동네소아과 662곳 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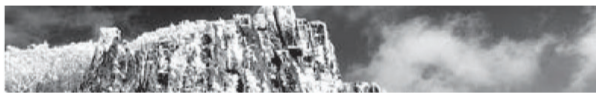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전문의들이 소아과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경영난으로 소아과를 운영하는 동네 병원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내과 등 다른 진료 과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찬반 논란을 떠나 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질 소아과마저 폐업을 선언한 현실이 안타깝다.

장기화된 저출산 흐름과 낮은 수가(진료비) 속에서 버티는 소아과의 폐과 선언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코로나19로 진료량이 급감하면서 이미 광주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간판을 바꾸거나 내과 등 일반 진료에 나선 동네 소아과 병원들도 많다. 피부, 미용, 통증클리닉 등 소위 '돈이 되는' 과목으로 전환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옮긴 회원도 많다고 한다. 소아과의 몰락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아과 병·의원 662곳이 폐업했다. 2020~2021년에는 78곳이 문을 닫았

다. 소아과는 의료 소송 리스크가 크다.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대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손해배상금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 소아과는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비급여 항목이 없고, 진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와 시술도 많지 않다. 진찰료만 수익을 내는 셈이다. 더욱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만7000원 가량으로 30년 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매년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아과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면서 필수 진료과목이다. 정부는 저출산 흐름에 맞춰 소아과가 처한 문제를 심도 있게 진단해야 한다. 수년간 누적된 소아 의료 문제를 방치한 책임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왜 이들이 폐업을 선언했는지, 어떻게 이들을 본업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대국민 차별인사'라는 극한적 방법으로 폐업을 선언한 소아과 의사의 호소를 예사로 들어서는 절대 안된다.

서석대



50년만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상수원 고갈 위기에 직면했던 광주·전남이 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초 오는 4~5월로 점쳐졌던 지역내 주요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가 올해말로 늦춰졌다.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저수위는 정상적으로 댐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 수위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광주 전남 생활 용수 124일분인 총 1억1900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기준 동북댐 19%, 주암댐 21%, 수어댐 66.1%, 섬진강댐 19.2%, 평립댐 30.2%의 저수율을 고려하더라도 이들 댐의 경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저수위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보다 극단적인 가뭄 상황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추진한다고 하니 농업 용수와 생활용수 공급난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년 간극 가뭄 체감도

전남도는 50년만의 가뭄, 한국농어촌공사는 70년만의 가뭄이라고 한다. 이같은 명기 차이는 기관의 역할과 대응 방안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베이비붐세대와 베이비붐 이전세대들 가운데는 현재의 가뭄사태를 겪으면서 어릴적 그때를 떠올리는 이도 있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께 전남에 심한 가뭄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금이 짙게 갈라진 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름 5m 안팎의 방죽과 관정을 파고, 양수기를 총동원했던 농촌 풍경이 어렵게 잊혀졌다. 50년이란 시간의 간극을 두고 직면한 가뭄이지만 체감도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배고픈 세대였고 수돗물 공급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그때 사람들과 정부(지자체)는 식수보다는 눈에 물을 공급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

다. 이때는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대형댐이 조성되기 전이고, 쌀 생산에 주력할 때였기 때문이다. 먹을 물 걱정은 덜했다. 집에 설치한 펌프샘과 마을 우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서다. 담수가 말라버려 바닥이 거북등처럼 변해버린 저수지와 관정 등은 가뭄 해소에 역부족이었고 농부들은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것 말고는 기댈 것이 없을 정도여서 가뭄은 말그대로 한해(旱害)였다. 생계와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여서다. 하지만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1970년대 이후 정부는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담양, 장성, 광주, 나주에 대형댐을 축조했고 수돗물 공급을 위해 동북댐과 주암댐 등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이들 용도가 다른 댐간 연계 운영도 가능해졌고, 강물과 해수를 취수해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비상급수를 위해 병에 담은 수돗물도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것도 50년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하여 지금 사람들은 절수 동참을 촉구하는 지자체의 휴대폰 안내 문자를 통해 가뭄을 인식하는 정도인 것 같다. 베이비붐세대로서 60년 가까이 가뭄이라는 자연 현상을 목도하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물의 위기가 지구촌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전국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꽃잎이 보타져 생기를 잃은 모습에서, 습기는 없고 미세먼지만 득실대는 나쁜 대기질로 인해 감기증세가 과거에 비해 오래가고 있는 것에서 가뭄을 체감하는 요즘이다. 생활속 물 절약과 지구 온도를 높이는 인간 행위에 대한 성찰과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당장 실천되지 않을 경우 가뭄은 자주,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이기수 논설시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